

2013년도 한-사우디 무역 동향 보고

2014. 4. 21

사우디아라비아 주재원

1. 2013년도 양국간 무역 동향

□ 2013년 기준 한-사우디 총 무역 규모는 464.9억 달러로 2012년 대비 4.8% 감소함 (2012년은 11.1% 증가)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5,596억 달러, 총 수입액 5,156억 달러, 무역수지 441억 달러로 2012년 대비 각각 2.1%, -0.8% , 55.9% 증가했으며, 전체 무역액은 0.7% 증가함.

최근 한-사우디 무역 동향

(백만불)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무역 총계	39,034	23,594	31,377	43,947	48,829	46,489
수출	5,253	3,857	4,557	6,964	9,122	8,824
수입	33,781	19,737	26,820	36,973	39,707	37,665
무역 수지	▽28,528	▽15,880	▽22,263	▽30,009	▽30,585	▽28,841

자료: 무역협회

□ 2013년 수출은 88.2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수입은 376.7억 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함

- 2013년 상반기에 부진하던 플랜트 수주부문에서 4분기 우리 기업들이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으며, 2014년 프로젝트 발주량 지속 등으로 기자재 수출은 긍정적 전망
- 전반적인 무역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등 수송기계 수출 규모는 증가세를 보임.
- 사우디는 2013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우리나라의 4대 무역 대상국가임

- 무역수지는 28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폭이 2012년 대비 5.7% 감소
 - 무역 구조상 우리나라의 원유·LPG·나프타 등 광물성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적자기조 유지

2. 2013년도 대 사우디 수출 동향

- 2013년도 대 사우디 수출은 2012년 대비 3.2% 감소한 8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성장세가 다소 주춤
 - 그러나 여전히 중동지역 최대 수출 시장 및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시장의 자리를 유지
- 수출 감소세는 최근 2~3년간 수출과 건설·플랜트 수주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데 따른 기저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
 - 특히, 2013년에 수출 감소세를 기록한 9~12월중 2012년 수출 증가율은 각각 28.6%, 31.2%, 32.5%, 30.8% 등 매우 높았음.
- 2013년 기준 수송기계(승용차, 자동차부품 등 포함)가 31.4억 달러로, 2012년 대비 27.9% 증가한 최대 수출 품목
 - 수송기계는 2012년 대 사우디 전체 수출의 26.9%를 차지한데 이어 2013년에도 35.6%의 높은 비중을 차지
 - 상위 10대 품목 수출액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수송기계는 견고한 수출 증가율(27.9%)을 유지함. 그 밖에 전선(92.3%), 충전기기(5.1%), 고무제품(2.0%) 등이 증가세를 보임.
- 2012년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되지 못했던 전선의 경우 2013년 1분기에 수출이 크게 증가, 2012년 대비 92%의 증가율을 보이며 7위의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음.
 - 철강제품은 전반적인 수출 하락세에도 수출액 2위를 유지

3. 2013년도 대 사우디 수입 동향

- 우리나라의 대 사우디 수입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대규모 감소 후 2010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수입 규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09년 이래 첫 하락세를 보여 2013년에 총 376.7억 달러를 기록하며 2012년 대비 5.1% 감소
 - 수입품목은 원유, 나프타, LPG 등의 광물성 연료가 전체 수입 규모의 96.0%를 차지할 정도로 광물성 연료 의존도가 높음.
 -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 상위국 중 사우디가 33.0%로 1위를 차지
-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기록하던 2010, 2011년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35.9%, 37.9%로 급등하는 등 국제유가는 대 사우디 수입액에 절대적 영향을 미침

4. 2013년 무역동향 분석 및 시사점

- 2013년 상반기까지 지속 상승하던 수출이 3분기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수출 증가율이 감소
 - 그러나, 2013년 4분기부터 삼성물산의 라빅2 민자발전사업, 리야드 메트로 사업, 한화건설의 Maaden 인산염 프로젝트 등 우리기업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로 금년중 공사관련 기자재 수출 회복 전망
- 현재 대 사우디 수출은 주요 품목이 자동차 및 공사 기자재 등에 치중돼 있으나, GCC 내 최대 규모인 사우디 소매시장, 의료시장 등 다양한 시장을 공략,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등 수출 품목 다변화를 고려해야 함.

- 최근 높은 인구 증가율을 감안한 의료시설 투자 확대, 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ICT 및 e러닝, 스마트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제품시장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
- 사우디 경제는 원유 수출 확대에 따른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 및 투자확대, 민간소비 활성화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낼 전망이다
- 2014년 사우디 정부예산은 2013년보다 4.3% 증액된 2,280억 달러이며 매년 증액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끝.